

# 기독교사회복지의 상황화 논의에 대한 연구

김광병(청운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I. 서론

우리나라에서 기독교사회복지 접근은 사회복지학 분야에서 먼저 시도 하였고 점차 신학분야로 확장되어가고 있다.

그렇다 보니 기독교사회복지와 관련한 연구도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진행되어 왔다. 하나는 사회복지학자 또는 기독교사회복지학자 중심으로 기독교사회복지의 개념과 실천적 접근(유장춘, 2011; 양혜원, 2007; 박종삼, 2004) 다른 하나는 신학자 중심으로 기독교사회복지에 대한 신학적 접근 즉, 사회복지신학 정립(양찬호, 2011; 김은수, 2006)을 통한 기독교사회복지의 정당성 확보가 바로 그것이다. 이에 따라 기독교사회복지의 이론과 실천이 어느 정도 발전되어 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그 핵심은 선교적 접근으로서 사회복지를 이해하고(이성곤·허준수, 2014; 박일연·노길희, 2013; 김은수, 2006; 박종삼, 2004) 교회의 사명이자 하나님의 일(양찬호, 2011; 김은수, 2006)로 보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틀리지 않고 기독교사회복지를 잘 대변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면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기독교사회복지는 일반사회복지와 어떤 차이점을 보이고 있는지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선행연구들은 기독교사회복지의 개념을 규정하고 특성을 논하지만, 실상은 그러한 논리들이 현장에 접목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러한 접근은 현대사회에서 사회복지가 제도화 되어 실천되고 있다는 상황을 간과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제도화 되어 있지 않은 과거의 상황에서 볼 때에는 이러한 접근들이 별 문제 없이 받아들여질 수 있지만, 현재의 사회복지관련법의 관점에서는 위법성 등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닌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재의 제도화된 사회복지 환경에서 기독교사회복지를 재해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우선 상황화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기독교사회복지의 개념에 담긴 의미를 찾으며 기독교사회복지가 처한 상황인 제도화된 사회복지의 근간으로서 사회복지관련법 내용을 살핀 후 극복해야 할 요소와 그에 따른 바람직한 상황화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II. 이론적 고찰

우리나라에서 기독교사회복지에 대한 접근은 주로 사회복지학자 또는 기독교 사회복지학자 중심으로 개념적 측면과 실천적 측면에서 시작됐다. 그리고 점차 신학자에 의해 기독교사회복지에 대한 신학적 측면에서 가치와 이념 등을 다루면서 그 정당성과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처럼 기독교사회복지를 신학에서는 당위성과 방향성 체계를 세우고 사회복지학에서는 실천적 체계를 세워 나간다는 점에서 조화로운 일일뿐만 아니라 기독교사회복지 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접근 방식이라 할 수 있다. 이를 구분하여 고찰하면 다음과 같다.

### 1. 상황화(contextualization)의 개념과 특성

사회복지를 신학적 관점에서 접근할 때 상황화 신학으로 가능하다. 상황화 된 신학적 기초는 바로 성육신 사건으로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스스로 자신을 계시하고자 상황화 했던 것에서 비롯된다. 이러한 하나님의 상황화는 오늘날에도 각 상황 속에서 개개인을 통해 자신을 나타내며, 인간은 각각의 다양한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도록 위임받게 된다(양찬호, 2011: 41-42). 따라서 사회복지를 실천하고 실현한다는 것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책임만이 아닌 교회가 부여받은 책임이기도 하다.

상황화 용어는 1970년대 초 신학교육기금(Theological Education Fund, 이하 TEF)에서 비롯되었다. TEF가 서구의 개인주의적 구원관과 윤리관은 인권침해, 계급차별, 빈곤 등의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대해 소홀하다는 점, 신학교육이 빈곤한 자와 억눌린 자의 해방 및 억압자의 지배권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는 점을 발견하면서 정치, 경제, 사회를 바꾸어 나갈 수 있는 신학교육, 즉 특수한 지역적 필요와 상황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정책을 발전시킬 수 있는 교육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출현하게 되었다(안승오, 2004: 230-233).

여기서 내린 상황화 정의는 인간이 처한 상황 속에서 복음에 대해 반응하고자 하는 능력이라고 한다(채은수, 1997: 15). 인간은 사회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환경, 즉 상황은 개개인의 사상, 가치, 태도 형성에 영향을 주게 된다는 점에서 상황화 정의는 바람

직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상황화의 작업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측면과 신학적인 측면에서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 즉, 기독교 진리의 전달은 인간이 처한 상황 속에서 성경의 본질적인 의미를 퇴색하지 않고 그들 문화의 형태와 사고를 빌려 제반 문제에 접근할 때 효과적이라고 한다(채은수, 1997: 15).

이러한 상황화의 개념이 태동할 수 있었던 가장 주된 이론적 배경은 하나님의 선교 개념에서 비롯되었다. 하나님의 선교 개념의 목표는 살롬에 있고, 이 살롬은 교회 안이 아니라 전 세계, 영적인 측면만이 아니라 실존의 모든 측면을 포함한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선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즉 사회가 하나님의 구원역사의 출발점이자 현장이 된다(안승오, 2004: 235-236).

따라서 교회는 우리에게 펼쳐져 있는 상황, 즉 환경에 의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응해야 한다. 예를 들어, 사회의 문제가 정의, 빈곤 등과 관련된 문제라면 교회는 그것들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채은수, 1997: 16).

그러므로 교회는 우리사회의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 사회복지에 관심을 가져야만 한다. 기독교사회복지야 말로 오늘날 가장 바람직한 선교의 접근 방법이 된다고 한다(김은수, 2006: 64). 그러나 상황화 전략이 기독교 진리의 전달을 위해 인간이 처한 상황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기독교사회복지라 명명 할 때에는 이미 사회복지분야가 상황화 전략의 대상이 되었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2. 기독교사회복지의 개념적 의미

기독교사회복지 관련 용어로는 논자에 따라 기독교사회복지, 기독교사회사업, 기독교사회봉사, 교회사회복지, 교회사회사업, 교회사회봉사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그 용어들이 추구하는 의미가 맥락상 같다고 보고 기독교사회복지라는 용어로 통합하여 사용한다.

기독교사회복지에 대한 개념은 연구자들에 따라 각기 다른 표현으로 정의되고 있다. 그러나 개념 역시 그 속에 담긴 의미는 비슷하며 다음과 같은 3가지로 구분해볼 수 있다.

첫째, 기독교사회복지의 근거와 관련하여 김기원(2003: 107)은 “기독교사회복지란 이웃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사회적으로 열악한 처지에서 물질적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삶의 질을 양적 질적으로 개선하고 성경적 정의를 실천하려는 제도적 노력이자 가치체계”라고 했다. 최무열(2004: 315)도 “사회적으로 적응

하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사회사업적 기술과 그리스도의 박애정신으로 치료함으로서 그들을 적응의 상태로 인도하는 것”이라고 했으며, 유장춘(2011: 76) 역시 “기독교적 신념과 가치체계를 따라 사회복지를 실천하는 것으로 지식과 이론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방법과 기술을 추구하는 실천체계”라고 했다. 박창우(2013: 675) 또한 “기독교사회복지를 인간과 사회에 대한 기독교적 이해를 바탕으로 인간의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활동”이라고 했다. 즉, 기독교사회복지를 기독교적 관점 즉, 기독교사상에 근거한 사회복지실천을 염두 해 두고 있다.

둘째, 기독교사회복지의 실천주체와 관련해서 이성곤·허준수(2014: 137)는 “기독교사회복지는 하나님과 이웃사랑의 실천이라는 기독교 이념과 선교의 정신을 기초로 하여 교회가 주체가 되어 인간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사회복지서비스를 실천하는 모든 활동”이라고 하였다. 박일연·노길희(2013: 88)도 “지역사회 내의 사회문제를 교회의 선교적 출발점으로 받아들이고 교회가 주체가 되어 사회봉사의 프로그램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양혜원(2007: 156) 역시 “기독교적 신념체계에 의한 복지, 기독교인이나 교회를 포함한 기독교단체가 주체가 되는 복지를 포괄”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면서 오정수(2004: 183)는 “교회사회사업은 사회사업의 기초 위에서 교회를 상황(context)으로 하여 실천되는 사회사업의 영역으로 다양한 목회이념을 가진 목회자와 다양한 수준의 신앙적 배경을 가진 실천가, 평신도, 심지어 비신앙인 자원봉사자들이 함께할 수 있다”고 하면서 비기독교인들도 기독교사회복지 실천에 동참할 수 있음을 시사해주고 있다. 이처럼 기독교사회복지는 교회, 목회자, 기독교단체가 실천주체의 중심이 되고 있다.

하지만 강춘근(2004: 6)은 “기독교사회복지란 하나님 나라의 실현과 회복에 궁극적인 목적을 두고 기독교의 근본정신인 이웃사랑의 섬김과 나눔을 통해서 세상가운데 열악한 처지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물질적, 신체적, 정신적, 영적 고통을 양적, 질적으로 완화시키고, 생활상의 곤란을 개선시켜 줌으로써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있다. 또한 성경적 정의를 세상 속에 실천하며 상실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려는 기독교인들의 제도적이고 체계적인 노력이며 가치체계”라고 하여 교회, 목회자, 기독교단체를 넘어 기독교인이라면 실천주체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즉, 일반사회복지분야에서도 기독교인이라면 기독교사회복지 실천주체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해주고 있다.

셋째, 기독교사회복지의 전달체계와 재정관련해서 박종삼(2004: 16)은 “교회사회사업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사랑실천의 의지와 성경의 가르침과 하나님을

믿어 구원을 얻게 해야 한다는 전도의 의지, 이 두 가지 요인이 동기가 되어 교회가 사회복지의 주체(기관)가 되어 사회복지자원 동원에 대한 일차적 책임을 지며, 공식적 종교복지법인 시설을 중심으로 교인과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충족과 복지증진을 위해 사회문제해결을 사회복지의 객체(대상)로 삼아 실시되는 일련의 활동”이라고 하였다. 즉, 기독교사회복지의 전달체계는 공식적인 종교복지법인 시설이 중심이 되며, 기독교사회복지의 재정책임은 교회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상과 같이 기독교사회복지 개념에 나타난 의미로 볼 때, 기독교사회복지는 기독교사상에 근거한 사회복지실천이며, 그 실천주체는 교회, 목회자, 기독교단체가 중심이 되지만 기독교인이라면 일반사회복지분야에서도 실천주체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그리고 기독교사회복지의 서비스 전달체계는 공식적인 종교복지법인 시설을 통하여 이를 수 있고, 그에 필요한 재정은 교회가 충당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회복지 주체와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독교사회복지를 교회가 기독교사상에 근거한 사회문제해결 및 지역주민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일련의 전문적인 실천 활동이라고 규정해본다.

### Ⅲ. 기독교사회복지의 상황화 접근

#### 1. 기독교사회복지의 상황화 검토

대부분의 경우 기독교사회복지는 일반사회복지와 달라야 한다고 기대한다. 하지만 현실사회에서 나타난 표면적인 현상은 이 둘이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보이지 않는 가치, 이념 등에서는 일반사회복지와 차이가 있다고 하지만 보이는 형태는 별반 차이 없이 나타나고 있다. 물론 차이를 보이기도 하는데, 대표적으로 예배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그렇다면 표면적으로 보이는 기독교사회복지가 일반사회복지와 동일하게 보이는 모습은 논리적 모순일까? 또는 일반사회복지의 형태가 기독교사회복지의 가치와 이념의 결과일까? 아니면 기독교사회복지가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걸까? 이는 곧 기독교사회복지가 현실 사회에서 상황화 되어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면으로서 지극히 당연한 모습이라 본다.

기존 연구에 나타난 기독교사회복지의 상황화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된 부

분은 첫째, 제도적 노력(강춘근, 2004; 김기원, 2003)으로서 기독교사회복지 둘째, 사회복지서비스 기술을 사용하는(이성곤·허준수, 2014; 최무열, 2004) 기독교사회복지 셋째, 공식적 종교복지법인(박종삼, 2004)을 세우는 기독교사회복지의 형태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모습은 기독교사회복지가 일반사회복지의 형태를 그대로 활용해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이외도 기독교사회복지는 다양한 모습으로 상황화 되어야 한다.

다만, 상황화시 전술한바와 같이 기독교 진리를 전달하는데 성경의 본질적인 의미를 퇴색시켜서는 안된다고 할 때, 이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의 문제가 남는다. 이는 너무도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한다. 단순히 예배를 드리는 모습으로 끝낼 사항은 아니다. 후술하겠지만, 이는 사회복지법적인 측면에서 위법적인 요소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선교신학자 존 스토틀(John Robert Walmsley Stott)는 복음전도와 사회활동의 관계를 세 가지로 분류한다. 첫째, 사회활동을 전도의 수단으로 간주 둘째, 사회봉사는 복음전도의 자연스러운 표현이나 혹은 결과 셋째, 복음전파와 사회봉사를 동반자의 관계로 보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그리고 존 스토틀은 셋째 유형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평가하면서 복음전도와 사회봉사 이 양자가 동반자 관계로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여기에서 복음전파와 사회봉사를 동반자의 관계로 본다는 것은 양자가 각기 다른 한편의 수단이거나 그것의 표현이 아니라 서로 속해 있으면서도 각기 서로 자신의 올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독립적이면서도 상호 협력적인 것이라고 한다(김은수, 2006: 52-53).

따라서 현대사회에서 교회가 사회복지를 다룰 때는 존 스토틀의 셋째 유형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즉, 교회는 복음전도와 별개로 기독교사회복지를 순수하게 실천해야 한다. 지금까지의 기독교사회복지는 존 스토틀의 첫째 유형에 해당되는 복음을 전달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했다고 볼 수 있다.

복음과 복지의 관계에서 이제 교회는 사회복지 기능을 수행하면서 어떠한 대가, 즉 교회출석 등을 중용해서는 안 된다. 교회는 단지 기도하고 인내하며 성령께 맡길 뿐이며 오직 지역사회를 위하여 봉사하고 섬기는 것으로만 만족해야 할 것이다(임희모, 2012: 245).

## 2. 기독교사회복지가 처한 상황: 제도로서의 사회복지

현재 교회가 실천하려고 하는 사회복지 환경은 제도화 되어 있다는 특징을 가

진다. 과거와는 달리 현대사회에서 사회복지의 제도로서 존재하는 것이 보편적인 현상이다. 다시 말하면 법에 의해서 사회복지가 수립되었다는(백종만 외 역, 2006: 5) 것이며 그럴 때 비로소 공식적인 사회복지제도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교회가 사회복지에 접근하려고 한다면 제도화된 사회복지 아래 실천할 수밖에 없다.

앞서 기독교사회복지의 제도적 노력을 주장하기도(강춘근, 2004; 김기원, 2003) 했지만 선언적 수준에 머물러 있고, 그 주장 역시 존 스토틀의 첫째 유형인 복음전도를 위한 수단으로서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실질적인 실천 내용은 일반사회복지와 구분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존 스토틀의 셋째 유형인 복음전도와 사회복지를 동반자 관계로 보면서 독립된 형태의 사회복지에 접근하기 위해 현재 상황을 이해하고자 한다. 따라서 제도화된 사회복지의 환경을 감안하여 현재 사회복지관련법에서 종교 관련 규정을 살펴봄으로써 기독교사회복지를 실천하는데 유의할 점을 찾아보도록 하겠다.

첫째, 교회가 기독교사회복지 실천을 위하여 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2항).

만일 신고를 하지 않고 교회가 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하게 된다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사회복지사업법 제54조 3호). 또한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장의 교체 등을 명하거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제1항 5호).

특히 주의할 점은 설치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어린이집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사실상 어린이집의 형태로 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3항 1호)는 점에서 아직도 어린이집이 아닌 선교원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교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인가를 받고(영유아보육법 제13조 제1항) 어린이집으로 전환해야만 할 것이다.

둘째,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sup>1)</sup>를 실시하는 사회복지시설<sup>2)</sup>장은

1)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

2) 장애인 거주시설, 노인주거복지시설인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의료복지시설인 노인용야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자립지원시설, 통합시설(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자립지원시설이 포함된 경우로 한정),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정신요양시설, 노숙인재활시설, 노숙인요양시설, 모자가족복지시설, 부자가족복지시설,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일시지원복지시설, 성매매피해자들을 위한 시설인 일반지원시설, 청소년지원시설

종교상의 행위를 강제해서는 안 된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3조 제5항). 만일 교회가 관련 시설을 운영하면서 예배 등을 강제하게 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된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0조).

또한 수급자에게 급여를 실시할 때 신앙 등을 이유로 차별대우를 해서도 안 된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3조 제3항).

셋째, 교회는 영유아보육 및 아동복지를 제공함에 있어 영유아와 아동 자신이나 보호자의 종교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영유아보육법 제3조 제3항 및 아동복지법 제2조 제1항).

이상과 같이 기독교사회복지를 실천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시설 신고를 하거나 인가를 받은 후 운영해야 한다는 점과 예배 등의 종교 행위를 강제하거나 신앙 등의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다만, 교회가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예배 등의 종교 행위는 자율적 선택으로서는 가능하다.

### 3. 기독교사회복지의 상황화 방향

지금까지는 기독교사회복지를 접근할 때 대부분 복음 전달을 접목시키려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의 나타나는 기독교사회복지는 일반사회복지와 별반 차이가 없다.

존 스토티의 셋째 유형인 복음전파와 사회봉사를 동반자의 관계로 보지 않을 지라도 상황화 관점에서 볼 때 기독교사회복지는 이미 사회복지라는 환경에 상황화를 적용시킨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따라서 교회가 제도화된 사회복지 환경에서 사회복지를 상황화 하려할 때 그 방향은 현실적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법에 밖에 없다.

첫째, 제도화된 사회복지에 교회가 하나의 주체로 참여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명시적으로 복음을 전파하거나 예배를 드리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지만, 기독교정신을 바탕으로 한 접근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둘 수 있다.

현행 사회복지관련법에서는 사회복지의 공급주체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업, 학교, 종교, 개인 등 누구라도 참여 가능하다. 따라서 교회가 기독교사회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공급주체로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다.

---

설,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인 일반보호시설, 장애인보호시설, 특별지원 보호시설,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장애인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인 단기보호시설, 장기보호시설, 외국인보호시설, 장애인보호시설, **결핵 및 Hansen병 요양시설**(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38조)



그리고 교회는 공급주체로 참여하기 위하여 종교법인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고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을 위탁 운영 및 교회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때 교회는 사회복지를 통하여 지역사회를 섬길 수 있다는 것에만 만족해야 한다. 단지 할 수 있는 일은 강제하지 않은 상태의 이용자들의 자발적 종교행위로서 기독교 의식 등을 진행할 수는 있겠다. 즉,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기독교관련 프로그램 운용이 가능하겠다. 최근 인문학 교육 등이 사회복지에 접목되어 실천되고 있다는 점에서 기독교 문화를 특성화시킨 프로그램으로 활용 가능하리라 본다.

이 방법은 제도화된 사회복지 체계에 교회가 접근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상황화된 전략이며 사회복지관련법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또한 기독교사회복지를 실천하는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 등을 받을 수 있다는 가장 큰 장점을 지닌다.

둘째, 교회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는 방법이다. 인적 자원인 성도들을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에 보내어 실천하도록 하게 하거나 물적 자원인 교회의 재정을 사회복지시설이나 기관에 기부하는 것이다.

이 방법은 제도화된 사회복지 환경에서는 위의 첫째 방법을 선택하지 않는 한 이 방법밖에 없다. 그러나 이 방법은 넓은 의미에서 기독교사회복지라고 할 수 있을지언정 명시적으로는 기독교사회복지인지를 알 수 없게 된다.

셋째, 제도화된 사회복지 체계를 포기한 채 기독교사회복지를 실천하는 방법이다. 즉,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어떠한 도움이나 혜택을 받지 않고 모든 비용을 교회가 전적으로 부담하여 교회가 자체적으로 기독교사회복지를 실천하는 것이다.

이 방법은 전통적으로 교회가 실천해오던 방식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제도화된 사회복지 환경에서 사회복지관련법을 통하여 사회복지의 일정 분야에서 신고, 인가, 허가를 받지 않고 행해지는 사회복지는 불법이라는 점에서 극복해야 할 과제이다. 따라서 첫째 방법이 아닌 한 이 방법은 기독교사회복지의 실천범위가 상당히 좁혀질 수밖에 없다.

#### IV. 결론

본 연구는 기독교사회복지가 일반사회복지와 비교해서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은 비슷하다는 점에서 출발하였다. 기독교사회복지가 일반사회복지와는 차

이가 있음을 주장하는 선행연구들의 논리에도 불구하고 표면적으로는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에 의문점이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이론적으로 상황화에서 그 해답을 어느 정도 찾을 수 있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첫째, 제도화된 사회복지 환경에서 기독교사회복지는 일반사회복지와 비교해 볼 때 이념이나 가치관의 차이는 있지만 표면적인 부분에서는 제도적인 사회복지 따르지 않을 수 없다. 만일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사회복지관련법을 위반하는 결과를 가져와 벌칙에 처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기독교사회복지가 추구하려 했던 복음전파에 장애를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 해 둘 필요가 있다.

둘째, 제도화된 사회복지환경에서 교회는 사회복지 공급주체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 종교법인을 사용하거나 사회복지법인을 세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설이나 기관을 위탁받아 운영할 수 있고 또한 교회가 직접 시설이나 기관을 세워 운영하면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고 운영할 수도 있다.

셋째, 표면적인 기독교사회복지의 독특성은 이용자들이 강요받지 않고 자율적인 선택에 의한 종교행위, 즉 기독교 관련 의식 등의 행위를 통해서 확보할 수 있다. 또한 사회복지현장에서 인문학 교육 등이 활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기독교의 정신을 담아낼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한 상황이다.

넷째, 교회는 기독교사회복지를 실천하면서 어떠한 대가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 기능을 수행하면서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섬길 수 있다는 것에 만족해야 한다.

지금까지의 기독교사회복지에 대한 관점은 존 스토틀의 첫째 유형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사회복지를 전도 또는 복음의 수단으로 인식하여 이를 접목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실상에서 이를 실천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이론과 실천에 괴리현상이 있었다.

따라서 이제는 이를 극복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기독교사회복지 실천현장은 현재 우리에게 펼쳐져 있는 사회 환경 속에서 진행된다. 교회라는 울타리를 치고 그 안에서 실천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통하여 교회 밖의 제도적 환경에서 기독교사회복지가 적용되고 실천되며 진행되어야 한다.

## 참고문헌

- 강춘근 (2004). “기독교 사회복지학을 어떻게 할 것인가?” 『신앙과 학문』 . 9(1). 1-27.
- 김기원 (2003). “탈세속화와 기독교사회복지 활성화방안.” 『교회사회사업』 . 창간호. 65-114.
- 김은수 (2006). “한국교회의 사회복지선교 실태와 과제.” 『인문과학연구』 . 7. 49-65.
- 박일연 · 노길희 (2013). “교인들의 교회사회복지사의 역할인식에 관한 연구.” 『교회사회사업』 . 24. 83-117.
- 박종삼 (2004). “교회사회사업의 영성적 실천방법: 거시적 측면에서.” 『교회사회사업』 . 2. 7-31.
- 박창우 (2013). “기독교사회복지의 구성 영역에 관한 연구.” 『신학과 실천』 . 36. 671-694.
- 안승오 (2004). “상황화 개념의 기원과 전망.” 『선교와신학』 . 14. 229-258.
- 양찬호 (2011). “사회복지신학은 필요한가?” 『교회사회사업』 . 16. 37-57.
- 양혜원 (2007). “기독교사회복지의 개념과 실천모델에 대한 기초연구.” 『충신대논총』 . 27. 147-171.
- 오정수 (2004). “교회사회사업의 영성과 세계관.” 『교회사회사업』 . 2. 181-194.
- 유장춘 (2011). “세계화 시대의 교회사회사업 실천.” 『교회사회사업』 . 17. 71-110.
- 이성곤 · 허준수 (2014). “기독교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직무만족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교회사회사업』 . 25. 133-171.
- 임희모 (2012). “지역사회를 섬기는 생명봉사적 통전선교.” 『선교신학』 . 31. 221-255.
- 채은수 (1997). “선교에 있어서 상황화.” 『신학지남』 . 64(4). 12-49.
- 최무열 (2004). “교회사회사업의 영성과 봉사신학.” 『교회사회사업』 . 2. 313-340.
- Zastrow, C. (2004). Introduction to Social Work and Social Welfare: Empowering People. 백종만 외 11인 역(2006). 『사회복지개론』 . 서울: 시그마프레스.